

##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주)유양디앤유

설립된 지 올해로 34년을 맞으며 1억 달러 수출기업으로 우뚝 선 (주)유양디앤유(대표 김상욱)는 화공약품 유통과 반도체 사업을 일구며 시티폰, 케이블모뎀, 이동통신 중계기 및 기지국시스템 등을 아우르는 전자정보통신 전문업체로 발돋움해 왔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전자, 정보통신 뿐 아니라 이제 신재생에너지, ESCO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하는 중이다. 세계 속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되기 위해 또 한 번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는 (주)유양디앤유를 찾아가보았다. 취재, 글 / 서희정(ESCO협회), 사진/최미연



(주)유양디앤유는 1976년 유양화학으로 출발하여 34여 년간의 긴 세월을 거치는 동안 꾸준히 사업분야를 확장해 왔다. 초기에는 화공사업, Hybrid IC사업을 영위하며 성장하였고 광중계기, 시티폰, 통신시스템 등 전자통신 분야에서도 차근차근 내실을 쌓았다. 1992년에는 중국 하얼빈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진출을 일궈냈으며 1995년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삼성전자에서 수여하는 품질대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누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상승세는 쭉 이어져 2006년 세계 최초로 LED TV용 BLU구동 회로를 발명하며 세계 최초로 특허를 취득하는 등 기술적으로도 유양디앤유의 저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유양디앤유는 기존의 전자, 정보통신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HIC모듈을 기반으로 한 LED, 3D용 초슬림 PSU와 LED솔루션,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변신을 꾀한 결과, 2008년에 1억 달러 수출탑을 이루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 한 기업의 이익만이 아닌 국가적 이익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어

ESCO사업에 어떻게 진출하게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김상욱 대표는 “최근 국가적인 녹색성장 정책과 에너지절약에 우리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가 우리의 주력 분야인 LED를 이용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어 사업영역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한 에너지절약이 이루어짐으로써 한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익에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앞으로 LED조명과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ESCO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양디앤유는 LED구동모듈부터 조명등, LED채널사인, DID라이트패널, LED하이브리드 가로등 사업 등 다양한 LED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다. 각 사업 영역에서는 대기업 못지 않은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력의 원천은 유양디앤유가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원장치(Power Supply Unit)기술을 LED에 접목시켰기에 가능한 것인데, 이러한 독자적인 전원장치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LED조명의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



(주)유양디앤유의  
기술력을  
설명하고 있는  
백광현 상무

다. 이로 인해 가장 큰 취약점이었던 발열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고, 에너지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부품기술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결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유양디앤유는 60여 명의 R&D 인력과 LED조명등 관련 국내 최초, 최다의 고효율인증 및 KS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UL 20건, CE 30건 등 해외 인증 또한 다수 보유하고 있을 만큼 품질 및 환경 시스템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양디앤유는 2010년 국내 최초로 LED조명과 홈네트워크를 융합한 이른바 유비쿼터스 LED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제로 회사는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LED조명을 운영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가전제품과 전력장치 등의 운용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마친 상태이다.

## 변화와 혁신! 우리가 중시하는 가치

유양디앤유는 초기 화공사업으로 출발하여 전자,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최근 ESCO사업 진출에 이르기까지 사업영역을 활발하게 넓혀왔다. 김상옥 대표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유양디앤유가 변화를 두려워했다면 여기까지 회사가 성장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김 대표의 생각은 직원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도 느껴진다.

“우리 회사에서는 그룹회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부터 경영진까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또 하나의 발전과정을 찾아내는 셈입니다. 특히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타 업체의 좋은 점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임원진뿐 아니라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들이 모여 업무에 관한 SWOT분석 등 다양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사내에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위탁교육을 진행하는 등 직원들의 정신적인 혁신을 위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양디앤유 될 것

김상옥 대표는 업무적으로 해외를 다니며 봤던 외국의 사례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한다. 조명, 신재생 분야에 있어서 분명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사례들이 많을 텐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개인적으로도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에너지사업은 국가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다 유연한 사고와 공익적인 목적을 우선으로 놓고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개인적 바람도 덧붙였다.

2011년이 '글로벌 유양디앤유'로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2010년에는 에너지절약에 관한 대중의 크나큰 관심으로 LED솔루션,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위주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반면, 회사 내부에서는 기술적인 트렌드를 쫓아가느라 정신없었던 한 해였으며, 2011년에는 유양디앤유 제 2의 도약기의 근원이 에너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려 34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는 인고와 자기개발로 발전해온 유양디앤유.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처럼 에너지 사용자와 함께 Win-Win하며 발전할 유양디앤유의 향후 행보를 기대해본다.

